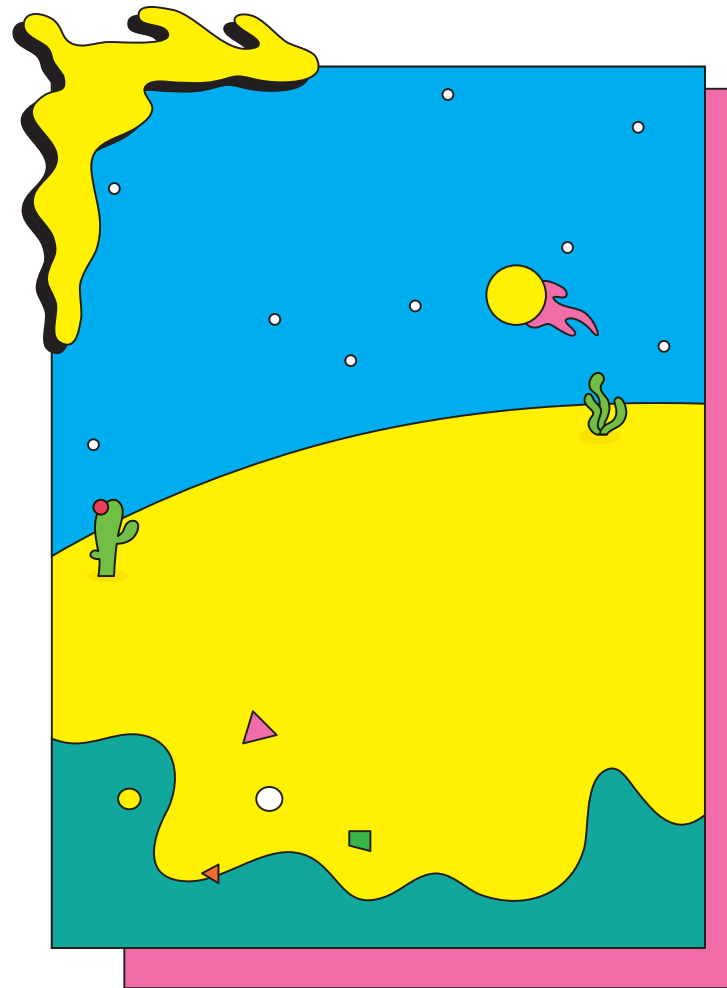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한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결과자료집



ggcf7colors@ggcf.or.kr

— 2018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한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결과자료집



www.ggcf.kr/

새로운 경기
경기문화재단



2018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결과자료집**

 ggcf7colors@ggcf.or.kr  031-231-7237

contents

Part 01.

문화다양성이 뭐예요?

- 6 ◦ 들어가는 글: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 7 ◦ 문화다양성 개념의 시작과 예술
- 9 ◦ 예술가의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그것’

Part 02.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실천 키워드

- 12 ◦ [키워드 1] 시작: 다른 존재를 향한 관심
- 16 ◦ [키워드 2] 만남: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
- 20 ◦ [키워드 3] 신뢰: 차이를 지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곳
- 25 ◦ [키워드 4] 발견: 몸의 움직임이 주는 자유
- 31 ◦ [키워드 5] 창조: 우리 이야기를 우리 목소리로
- 36 ◦ 나가는 글 : 문화다양성을 아는 ‘마음’



Part 03.

2018년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사업이 지나온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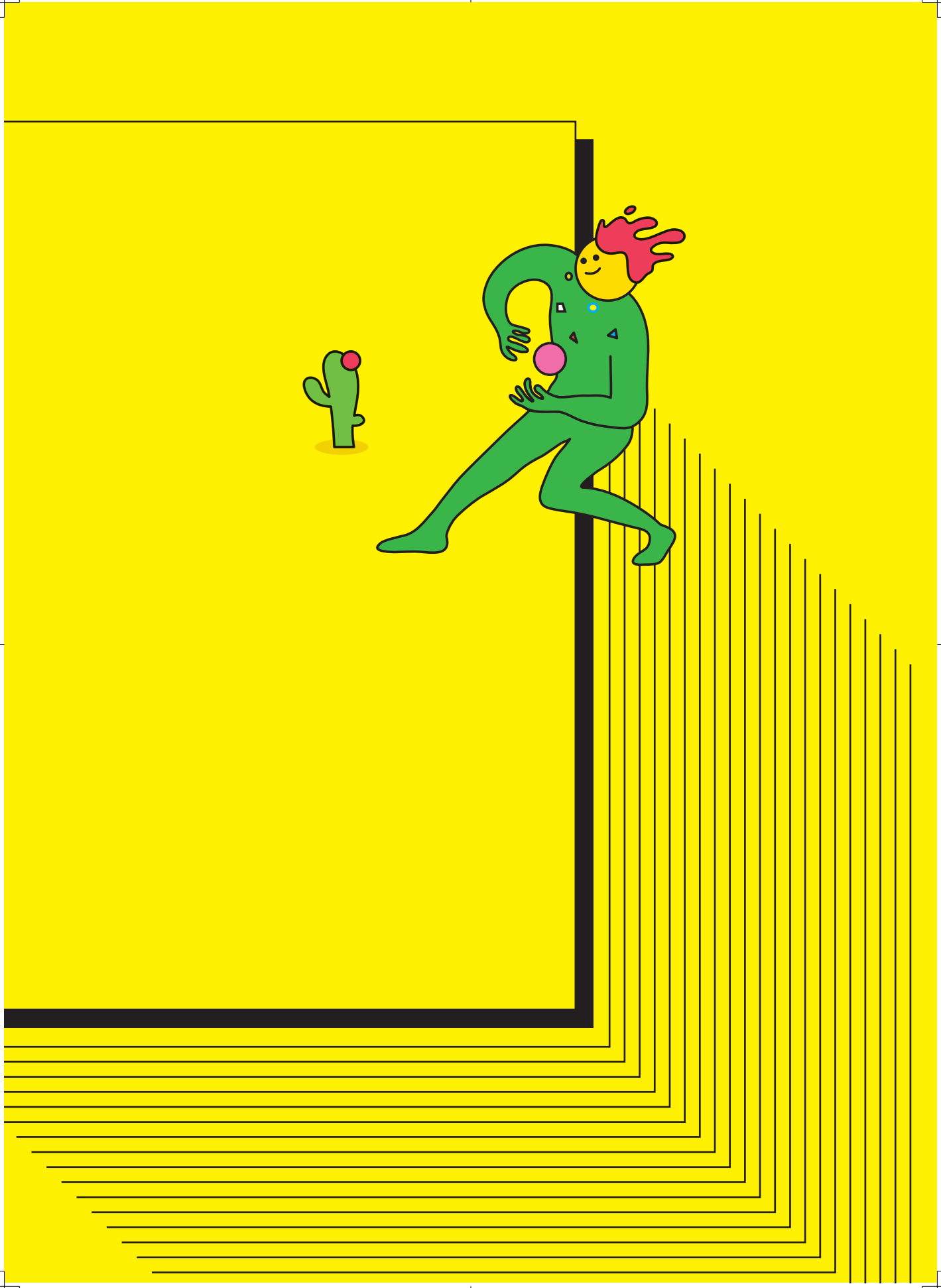
- 40** ◦ 사업 기본개요
- 42** ◦ 사업 추진과정
- 44** ◦ 2018년 사업 참여 단체



Part 01

- 들어가는 글 -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 문화다양성 개념의 시작과 예술
- 예술가의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그것'

문화다양성이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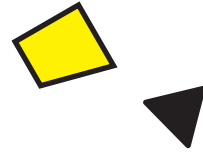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예술가에게 “문화다양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마치 아이들에게 “동심이 무엇이나”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도 같았다. 자신에게는 꽤나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추구된 관심들이 ‘문화다양성’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과 그 아귀가 맞지 않을 거라는 인상 때문이었을까. ‘잘 모르겠다, 개념이 어렵다, 문화다양성은 모르겠고, 어쨌든 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말로 입을 뗀 사람들의 이야기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그 자체로 담고 있었다. 동심이 무엇이나고 묻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이렇다’고 답할 아이들처럼.

인터뷰를 통해 만난 올해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참여 예술단체들의 공통된 출발점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이었다. 예술가로서 갖게 되는 새로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끌림일 수도 있고, 기존의 언어나 사고방식 혹은 문화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되기도 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새로이 만들어갔다. 무언가를 교육하기보다는 삶의 결이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만나고 함께 협업하고자 하는 열린 태도가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성을 발견하는 길이 되었다. 예술가로서 가진 이들의 태도와 관심이 이미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담고 있었다. 예술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문화다양성은 예술의 본질적 가치일 수도 있고 예술의 다양한 특성 중 하나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예술을 떼어놓고 문화다양성을 말하기란 어려울 것임은 분명하다.

문화다양성 개념의 시작과 예술



1945년 유네스코의 설립과 함께 처음 문화의 다원성, 다양성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전면에 내세워진 것도 예술이었다. 지금도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 유네스코 공식 잡지인 <Courier>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었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지식 채널이 되었다. 1958년 12월 호는 특별히 ‘동양 서양(Orient Occident)’을 주제로 기획되었는데, 발리 무용수를 표지 모델로 선택한 잡지 안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예술과 문학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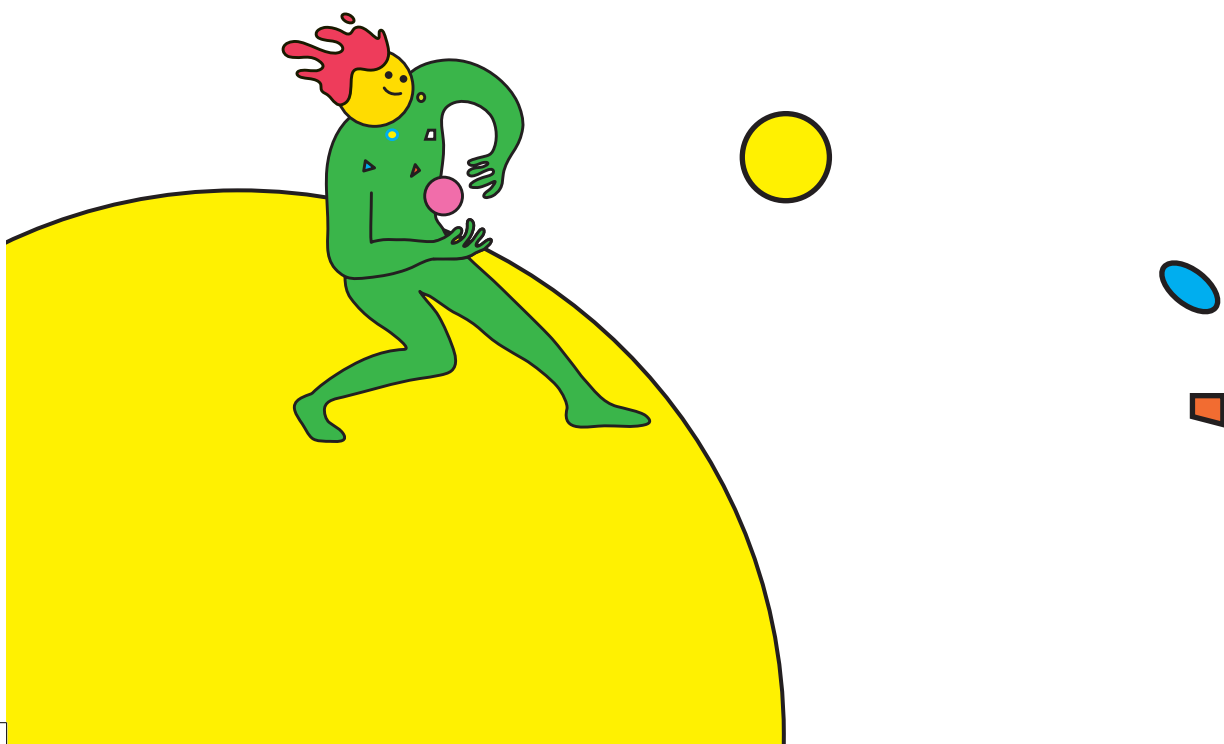
“그 근원이 동양 혹은 서양이든 상관없이 직접 읽고, 보고, 듣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사람과 문화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항상 현명하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진짜 사람들, 진짜 나라들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동양(East)’이라는 관념을 버리는 것은 현명한 시작이다”¹⁾

문화다양성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동양인은 고대 철학이나 역사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어온 ‘파편화된 존재’들이었다. 서구인들의 세계관 안에 짜 맞추어진 채로 하나의 이미지 안에 당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십 수억 명의 존재가 뭉뚱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까지 지속되어온 각 나라마다의 예술이 가진 고유한 방식과 아름다움은 서구 문화에 포섭될 수 없는 자율적인 인격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었다.

1) UNESCO, 1958, 3p, 12쪽

물론 당시 서양의 인식에서 출발한 문화다양성의 논의는 지난 반세기를 거치면서 다각적으로 변모해왔지만, 예술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의 존재와 그 면모를 드러내는 중요한 매체이다. 그 역할을 인정하듯, 획일적인 관습과 문화의 숨통을 터주는 창작물에 우리는 종종 ‘예술’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준다. 예술 안에서 우리는 다면적인, 때로는 역설로 가득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나에게 익숙한 얼굴 안에서 전혀 낯선 모습을 보기도 하고,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을 한결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기르고 전혀 다른 세계와 만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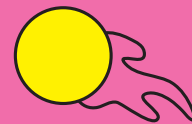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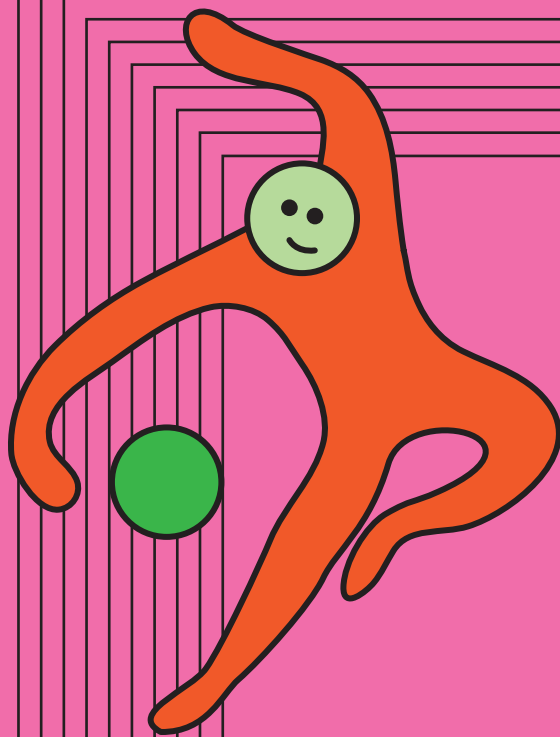


예술가의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그것’

예술은 한 사회나 문화 그리고 개인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발견하고, 또 자신들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과정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시적 허용’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술 안에서는 언어나 이미지의 통상적인 의미를 변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기존과 다른 발견이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종종 새로운 생각과 관점들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0년 발간된 『유네스코 세계보고서 :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에서는 스포츠와 함께 문화와 예술 참여 활동을 수반하는 기획 사업들이 “특히 분쟁에 시달리는 나라들의 혜택 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문화 간 대화로 이끄는 특별히 강력한 수단”이 되었으며, 예술과 창의성이 “폐쇄된 정체성과 맞서 싸우고 문화적 다원주의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²⁾고 언급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예술 표현을 함양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활동 안에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이미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가의 작업과 문화다양성이 연결된 주제라는 것은 일면 당연해진다. 내가 예술가로서 나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찾아갔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력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문화다양성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술가로서 자신만의 동기, 태도, 과정을 되짚어보고 성찰하는 일이 곧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는 방법에 대한 열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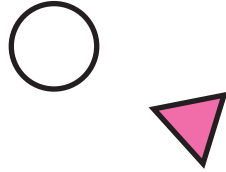


Part 02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실천 키워드

- [키워드 1] 시작 : 다른 존재를 향한 관심
- [키워드 2] 만남 :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
- [키워드 3] 신뢰 : 차이를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는 곳
- [키워드 4] 발견 : 몸의 움직임이 주는 자유
- [키워드 5] 창조 : 우리 이야기를 우리 목소리로
- 나가는 글 : 문화다양성을 아는 ‘마음’

[키워드 1] 시작 다른 존재를 향한 관심



보았던 것을 비우고, 다시 보려는 마음

“예술가란 존재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자기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그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이들이다.”³⁾

박영택 미술평론가가 어느 일간지 칼럼에서 예술가를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익숙한 일상을 낯설고 다르게 보고, 낯설고 다른 것들을 탐험하는 것을 즐기는 태도를 예술가 안에서 자주 발견하는 것을 떠올리면 쉬이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문장은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 [예술가는] “스스로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 여기서 그는 비로소 주체가 된다. 모든 예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창의성과 상상력이 움튼다. 기존의 삶이 강제하고 요구하는 시스템과 가치관에서 빠져나온 이들이 비로소 예술가가 된다.”

‘자기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그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언뜻 듣기에는 자기 독단으로 흐를 것 같지만 이 글은 오히려 ‘타자에 대한 포용과 이해’로 예술가의 동력을 설명한다.

3) 박영택, “[문화와 삶] 예술, 빛나는 타자를 발견하는 일”, 경향신문 (2015.3.4. 일자)

“예술가란 사물이나 세계에 부여된 관념이나 상식을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그것을 물리친 자리에서, 여백 같고 공(空)한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다. 사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낯설고 의아하고 생경한 타자들이다. 인간은 그 타자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자신과 관계 맺는 타자에 대한 포용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술가란 존재는 타자에 대해 그런 마음을 지닌 이들을 일컫는다.”

관념과 상식을 물리친 자리에서 다시 보려고 하는 것, 기존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혈벗은 마음으로 기꺼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예술가적 태도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상식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만나도록 한다.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볼 자유를 허락한다.

타자에 대한 이런 마음은 다른 존재들을 쉽게 속단하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를 살피고 궁금해 하는 관심으로 이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문화다양성의 정신으로 우리를 곧바로 인도한다. 이러한 관심과 궁금함은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프로그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누구나 간직한 ‘누군가를 향한’ 관심

“한 4-5년 전부터 여자들을 리서치하기 시작했고 아줌마라는 키워드로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도서관에서 늘 마주치는 장애인이 한명 있었어요. 보통 잘 모르면 ‘아줌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 부를 때 ‘학생!’하고 부르더라고요. ‘아줌마’라고 언어를 붙이기에는 정형화된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 때 떠오른 생각이 아줌마라고 잘 불리지 않을 법하지만, 사실은 그 범

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 프로젝트 제로, 안소영

오래 전부터 ‘아줌마’라는 키워드 안에서 진척해 온 여자들에게 대한 관심에서 프로그램 기획이 시작 되었다고 말하는 <F등급: 여성적 몸쓰기> 기획자의 눈 안에는 박영택이 말하는 ‘타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여성적 몸쓰기’라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의 기획은 말을 통하지 않은 다른 소통 방식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아줌마 혹은 여자라는 개념이나 상식이 비워진 거기에서 부터 출발했을 때 여자들은 지금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낯설고 의아하고 생경한 타자’들은 사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 내 마음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낯설어질 때 그 기분을 붙잡는 것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움직임 참여연극 “같은 몸, 다른 시선”>이 그러했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부르는 말 앞에서 갑작스레 툭 튀어나와 소화되지 않는 내 안의 낯선 기분을 붙잡았고, 뭔지 잘 모르겠는 이 기분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기획의 출발이 된 것이다.

“이 사업이 딱 떼을 때 약자 범주 안에 여성이 들어간 것이 너무 쇼킹했어요. ‘내가 약자야?’ 거기서부터 조금 자존심도 상했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경험을 들려다봤더니] 제가 화장실을 무서워하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처음 서울로 지하철역 화장실에 있다가 옆 칸에서 남자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공공화장실은 누군가가 나를 볼 수 있다는 긴장과 공포가 있었어요. 이것이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얘기하다 보니 남편에게 화장실은 그런 공간이 아닌거죠.

이게 나만의 경험인가? [...] 그러니까 첫 시작은 내가 약자일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여성들과 얘기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 찾아가는 연희극단 너영나영, 고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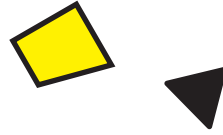
다르고 낯선 존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 자체가 출발이 된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자신들과 전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 이를테면 노인 세대나 시설보호청소년들과 만나서 예술 활동을 같이 해보고 싶은 순전한 마음이 동기가 된 것이다.

“이 사업과 상관없이 작년부터 ‘나사로 청소년의 집’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어디에도 맞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 알던 사업들은 이 아이들이 사업 대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다양성 사업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 아이들과 이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구요.”

- 창작그룹 가족, 윤돈선

프로그램을 매개로 공동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만남, 새로운 대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들의 기획 안에 있었다. 그러나 이질적인 문화와 정서를 가진 참여자들과의 협업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다른 존재를 향한 열린 마음,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예술가의 그런 마음’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의 진행과 함께 그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키워드 2] 만남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



계획의 수정

“처음에는 공연 완성도에 포커스를 두었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공연까지 17회차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했던 거였죠. 문화다양성 보다 먼저가 인간의 다양성이더라고요. [한 보호시설 안에 있지만] 각기 다른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게 모여 있어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마음이 모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 서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초반 작업에 더 넣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 창작그룹 가족, 윤돈선

<교실 밖, 하나 되는 우리들>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감은 프로그램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기획자의 고백처럼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 직접 만나서 경험한 아이들의 존재 사이에는 외면할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다.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한 경험에 있기에 제법 자신감이 있었지만, 또래 청소년들과는 다른 삶의 역사와 정서를 가진 채 보통 학교와는 다른 환경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질성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은 그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곳에 있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요.” 아이들과 무언가 함께 하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마주해야만 했다. 그렇게 마음을 살피고 다가가는 사이에 프로그램의 관심은 조금씩 공연에서 아이들 자체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완성도 있는 작품을 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것보다는 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보기에는 어설피고 미흡해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네들이 이것을 하면서 말 그대로 느끼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완성도보다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해요.”

- 창작그룹 가족, 윤돈선

공연을 만들고 무대 위에 올리는 일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멋진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경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이들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다.

나의 시선이 먼저 바뀌는 경험

노인과 중년세대가 함께 인형극을 만들어 간 <청춘고백>은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거쳤다. 한 번도 같이 작업해보지 못한 노인 세대와 인형극을 매개로 소통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괜찮은 출발이었지만, 요즘 세대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정작 새롭게 만나게 될 그들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노인’이라는 단어 앞에 가로막혀 있기도 했다.

“저희 단체에서는 처음에 어르신들의 인식을 개선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시민이 될 수 있게 해보자는 접근했어요. 왜 노인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고집 세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젊은 세대를 안 좋게 생각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의 인식을 개선하면 이게 문화다양성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 예술문화연구소, 박미라

그런데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참여자들이 어떻게 서로 마음을 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획자 스스로 갖고 있던 편견을 직면하면서 노인 세대에 대한 생각에 큰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도 막연히 상상했던 존재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은 머릿속에 자리 잡은 관념을 통째로 흔들어 놓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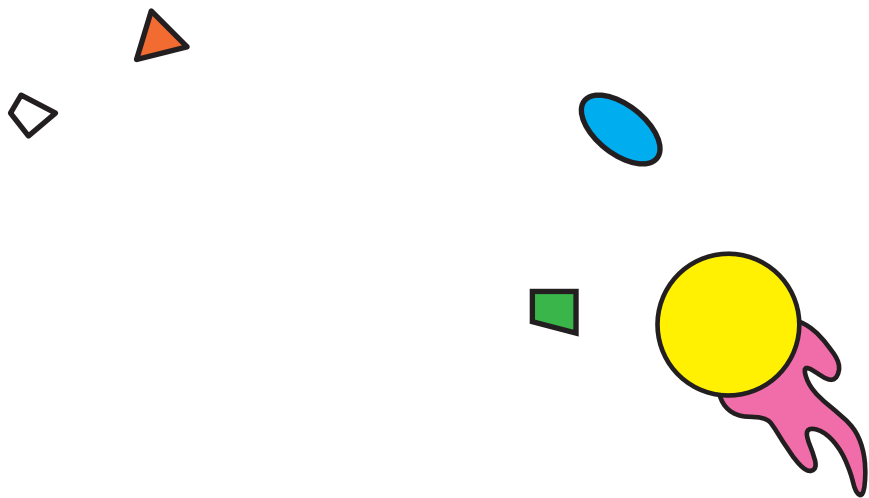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 부부가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거든요. 처음에 장애인부부라고 해서 혹시 어르신들이 별 뜻 없이 하는 말씀인데 혹시나 상처주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귀 기울여 들었는데 저희의 지나친 염려였어요. 저번 주에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본인이 힘들게 살아온 얘기를 꼭 하셨어요. 한 참 얘기하고 나서, 그 장애인 남자 분이 듣고 계시다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르신을 격려하고 이야기에 공감해 주면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 예술문화연구소, 박미라

문화다양성의 문은 누가 누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것이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편견을 거두고, 서로의 진심 앞에서 기꺼이 변화하는 용기를 낼 때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문이기 보다는 모두가 각자 열어야 할 뒹이 있는 마음의 창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저부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노인세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 편견이 있었고 오해들이 있었어요.” 생각의 변화는 이들 사이의 대화를 바꾸었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노년은 누구한테나 오는 게 아니래요. 전쟁과 고난과 질병을 다 이긴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 때부터 위대해 보였어요. ‘정말 존경하고 위대하시다’ 저희가 박수를 쳐드렸거든요. 어르신들 인정하는 말을 하니깐 좋으시죠. 내가 특별하구나, [어르신들 스스로] 그걸 알게 하고 싶었어요.”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타인으로부터 내가 보지 못했던 ‘빛나는 면모’를 발견하는 마음은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의 문

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한 어르신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소극적이었어요. 말도 나
누려고 하면 자기는 건너뛰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웃음소리가 굉
장히 커지셨어요.”

<청춘고백> 기획자가 들려주는 경험은 우리는 얼마나 ‘타자를 뭉뚱그려진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체로 마주하고 있는가?’ 되문게 한다. 우리가 ‘직접 읽고, 보
고, 듣고, 이해’하고 있는 타자의 삶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1958년, 동시대적 존
재로 아시아를 마주보기 시작한 서구사회에 던져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
하다. 사회적 다수자와 소수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주민과 이주민, 남성과 여
성, 청년과 노인이라는 말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들의 믿음
과 욕망을 막연히 상상해내고 있지는 않는가?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미지로 그들
의 목소리와 말들을 멋대로 편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편협한 자세를 고치고 마음
을 열어야 하는 사람들 안에 ‘나’는 제외하고 있지는 않은가?



[키워드 3] 신뢰

차이를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는 곳

‘진짜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한국처럼 동질성, 단일성이 오랫동안 미덕이 되어온 사회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주류사회의 가치와 시선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에 익숙해지기 쉽다. 그것이 흔한 삶의 전략이 되어버릴 때 개인의 고유성을 살피는 일 자체가 생경해진다. ‘왜 굳이 다른 의견을 말하지?’, ‘너무 유별난 거 아닌가?’, ‘조금 참으면 안 되나?’, ‘그냥 좀 맞추어 살면 안 되나?’ 이러한 못 마땅한 시선은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비추는 것일지 모른다. 차이를 드러내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마저도 진실하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것은 수줍음이나 창의성의 문제이기보다 애초에 ‘차이’가 하나의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르다’면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경직된 문화 탓이 더 클 수도 있겠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경우 관건이 되었던 것이 참여자들이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게 되는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소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서 아예 자리를 피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정답처럼 너무 반듯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바람에 예술가의 고민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표면적 양상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같은 문제였다.

“여성의 옛이야기 중에 여성이 겪었을 법한 갈등상황을 찾고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장면으로 만들었어요. 이를 테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남편은 그냥 버리고 떠나는데 자식이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래서 결국 ‘육아는 사회가 보장하라’는 장면을 만들면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또 ‘춘향이’에서는 여성들이 연대해서 변학도를 몰아내는 것으로 구성을 만들었어요. 이들이 여성이라고 했을 때 자기 내면으로 만나기 전에 벌써 사회적인 방향 안에서 어떻게 해법을 풀어야 할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게 조금 답답했어요. 관습적인 이해와 생각이 예술 작업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찾아가는 연희극단 너영나영, 고봄이

이들이 구성한 대사 속에는 억압을 거부하는 해방이 있었지만, 예술가가 느끼기에 그것이 정말 나의 언어, 우리의 언어인지 또 다른 사회적 조류를 내면화 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정답 같은 말끔한 해결책들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저도 여성들이 차별받는 것을 알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명절에 가서 전을 부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의 나를 직면할 때 내가 힘들지, 말로 ‘여성도 명절에도 평등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의 생각 상자 밖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

익숙한 사고의 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는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른 존재방식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이 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고는 갖기 어렵다.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경제력이 권

그리고 이러한 환경 안에서 나는 여자들의 이야기들은 다른 곳에서라면 쉽게 꺼내지 못했을 친밀한 것들이었다. “[이 사업이 저에게 남긴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하는 토양이 만들어 진거예요. [...] 그런 것을 이제는 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질 좋은 비료가 뿌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뚫어주는 얘기 있잖아요. 시원한 얘기들이 오가는 토양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기뻐요.”

모두가 다르고, 모두가 존엄하다는 사실

이처럼 차이에 대한 지지와 인정은 우리 각자가 ‘나’다울 수 있는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서로의 모든 차이를 이해하거나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모두 고유하고 다층적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를 내가 마주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격하거나, 그 존재를 거짓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 믿음의 토대가 형성될 때 우리 모두 조금씩 상자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서 존엄성이 있다는 믿음이 하나의 ‘사실’로서 자리할 때 가능하다. 유네스코가 ‘차이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기반’ 그리고 ‘동등한 수준의 활동의 장’, ‘엄격한 지위의 평등’을 말하는 것도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단지 차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대화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려는 상호간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 [...] 의미 있는 대화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동등한 수준의 활동의 장, 그리고 자발적인 문화간 대화 노력에 관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의 엄격한 지위의 평등이

[키워드 4]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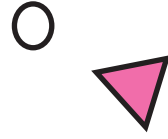
몸의 움직임이 주는 자유

우리 몸짓이 담고 있는 것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파티에 초대되었다고 상상해보자. 내 옷차림인지, 머리 스타일인지, 아니면 걸음걸이 때문인지 흘깃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누군가 나에게 적대감을 드러낸 것도 아닌데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묘하게 전해진다.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끝없이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내뱉는 말이나 행동보다 의미를 정확히 포착할 수 없는 미묘한 제스처와 시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기가 더 사람을 위축시키는 기분에 처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하다. 그리고(삭제) 이러한 경험은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들, 가령 ‘몸짓들’이 그냥 의미없는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빌렘 플루서는 『몸짓들』에서 이러한 종류의 몸짓에 대해 말한다. 그는 기계적인 신체의 움직임과 구분되는 ‘의도를 표출하는 방식’으로서의 몸의 움직임을 ‘몸짓’이라는 말로 지칭한다. 그에게 몸짓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난 기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몸짓이란 ‘표출된 기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몸짓은 하나의 언어처럼 우리의 생활과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언어적 소통들이 그런 경우이다. 누군가 내 팔을 갑자기 잡았을 때 내가 팔을 들어 올리면 사람들은 그 몸짓을 ‘거부’의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몸짓이 오로지 ‘거부’의 의미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이를 테면, ‘당황함’, ‘불쾌함’, ‘경고’ 등 복합적인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 몸짓의 의미가 복합적일 수록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태도, 편의를 거슬러 소통하려는 시도



사회 안에서 코드화된 인간의 언어, 감정, 이미지, 몸짓들을 끊임없이 해체하고 새롭게 생산하는 영토가 예술의 세계이다. 어떤 배우가 특정한 플롯 안에서 해석된 부성애, 혹은 ‘자녀에게 사랑을 느끼는 아버지의 기분’을, 이를테면 ‘자녀를 모질게 혼내고 뒤돌아 숨죽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가정하자. 관객들은 캐릭터, 이야기, 극의 분위기에 따라 이 몸짓이 더 없이 절묘한 표현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설피다거나 ‘진짜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플루서는 몸짓의 진실성에 대한 이해가 미적 특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미적 특성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감수성은 정형화되지 않은 예술적 표현을 하거나 이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상의 순간들에도 이러한 섬세함이 자주 활성화될 때 훨씬 진실하고 풍성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매 순간을 이러한 방식으로 살기는 어렵겠지만,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채 나와 타인 그리고 서로를 만나고자 할 때에는 기꺼이 편의를 거슬러 소통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성의 의사소통 방식을 지탱시켜온 기제들을 털어내고 실존하는 몸짓을 예술적 태도와 시선으로 온전히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몸의 움직임, 몸짓은 많은 프로그램들의 과정 안에서 ‘관념과 상식을 물리친’ 곳에서 다시 무엇인가 보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 <움직임 참여연극 “같은 몸, 다른 시선”>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 명료한 정답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지던 흐름을 바꾸어 주었던 것도 몸을 통한 탐색이었다. 자신의 생애주기를 말이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시 몸으로 직접 표현해 보았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졌다. 자기 생애의 한 때를 몸으로 기억해 내는 것, 그 때의 몸짓을 다시 해 보는 경험 안에서 말로 풀어냈을 때에는 포획되지 못한 기분과 맥락들이 감지되었기 때문일까. 실제로 참여자들 중 예전에 비슷한 생애주기 작업을 해

보았지만, 몸으로 이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경험이 분명한 이해의 차이를 주었다고 한다. “내가 몸으로 나를 확 만났을 때는 머리로 받아들였을 때랑은 세계가 달라지잖아요. [...] 몸은 자기를 만나는 가장 낯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직접적이잖아요.”

<F등급: 여성적 몸쓰기>에서 몸짓은 자신을 객관화된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몸과 그 움직임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했다. 서로를 편견 없이 만나는 시간이자, 스스로 보지 못했던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 되었다. “우리가 자기 몸을 못 보잖아요. 몸의 일부분 밖에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또 깊은 호흡을 통해서 자기 몸 전체를 느끼는 것이다. 플루서의 말처럼 몸짓이 표출된 기분이라면, 거꾸로 고유의 몸짓, 해독(decode)되기 이전의 몸짓을 대면하는 것은 자신의 심연으로 우리를 초대할지도 모른다.

“사실은 내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나는 불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미지에 있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보다도 몸은 더 미지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내 몸을 파편화된 상태로 밖에 못 보고, 늘 있는 호흡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결국 내 몸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 프로젝트 제로, 안소영

같은 움직임이 공명하는 마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말이 없을 때 더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망이 작동되

기도 한다. 그것이 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고유한 미감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연대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특질들이 문화 간 대화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앞에 등장했던 파티의 분위기처럼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양식(style)이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몸짓들이 이방인에게는 의도치 않은 배제와 단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루서가 말했듯이 모든 몸짓을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코드화하는 것은 인간의 풍요로운 정서를 비우고 끝내 그 몸짓을 공허하게 만드는 길이고, 문화다양성이 지향하는 것과도 다른 방향이다. 다만 우리가 문화 간 대화를 시도할 때 문화적 경계 사이에 있는 구멍을 최대한 넓혀서 서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갈 수는 있을 것이다. 마치 함께 춤을 추자고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이다. 누구의 문법에도 따르지 않고 같이 만들어가는 몸짓 안에서 각자의 몸에 깊이 베인 무의식적 제스처나 뉘앙스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공기가 채워지는 경험은 그 어떤 환영인사 보다 우리를 그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열린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감도는 묘한 눈치 게임과 긴장감을 풀어내기에 문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몸의 움직임만 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다시 각자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낯선 문화의 몸짓들을 다 이해하는 것에 있기 보다는 - 그것 문화적 획일화를 기획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막연한 단절, 거리감, 두려움, 오해가 만드는 장벽을 해소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마치 <청춘고백>의 어르신들과 <교실 밖, 하나 되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몸짓이 서로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어르신들 중에 20년 전에 품 맞으신 분이 계셨는데 다리도 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춤추고 노래하고 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똑바르지 않고 높이 들지 못해도

[키워드 5] 창조 우리 이야기를 우리 목소리로

너와 나의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우리 이야기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뿐이다. 속된 말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옛 말이 무색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 내 마음의 깊이를 넘어선 깊이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 제한적이고 그 시선이 경직되어 있다면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도 무척 단순하고 통념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복합적인 문화적 존재로서 나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더욱 섬세한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은 높아진다.

“저희가 20대에서 50대, 그리고 3개 나라의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굉장히 낮은 사람하고 나누지 않을 얘기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 세대의 차이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 보통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 프로젝트 제로, 안소영

<F등급: 여성적 몸쓰기> 프로그램 중반까지 언어를 덜어내고 몸짓으로 서로를 만났던 여자들 사이에는 다시 언어가 개입되면서 첫 만남이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법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 자유함 속에서 여자들은 점차 자신을 표현하는 선택들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자화상 시를 모두 적었는데, 퍼포먼스 때 그것을 활용했거든요. [...] 발체문으로 퍼포먼스에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순

간적으로 그 때 다른 느낌이 들어서 바뀐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회적 시선 앞에서 눈치를 보던 여자들도 어느 순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아채고 거기서 뚫고 나오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공기를 만들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몸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다른 사람 몸을 보면서 내 몸도 저렇게 보일까 두렵고, 그래서 움직임을 할 때 이게 맞나 계속 자문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여지는 몸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누가 해준 게 아니고 - 그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을 거라 생각해요. 퍼포먼스를 도서관 로비에서 했는데, 문화다양성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그 말이] 우리 대화에서 나온 적도 없지만, 거기에 모여 든 동네 사람들은 [무언가]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 프로젝트 제로, 안소영

우리의 목소리를 찾아가기

자녀가 있는 중년 여성들과 함께 했던 <움직임 참여연극 "같은 몸, 다른 시선">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간 예술가에게 ‘이 시간이 유일하게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고백을 해왔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나의 질문들을 대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은 동시에 타인을 만나고 공감하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나의 질문들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질문이기도 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갖고 있는 숙제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 해결하고 있는, 견디고 있는, 앞으로 겪어내야 될 것들을 공유하

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자기들의 흐름을 갖고 가죠.”

- 찾아가는 연희극단 너영나영, 고봄이

그렇게 풀려 나가기 시작한 수많은 자기 이야기들은 예술가의 조력을 받아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인생의 질감은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술가는 예술적인, 연극적인 기량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있는 사람인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자원으로 자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마무리해 가는 예술가들의 바람은 그런 것들이었다. 참여자들이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것. 그것이 애초에 예술가로서 스스로 꿈꾼 것이었고, 예술가로서 같이 꾸고 싶은 꿈이기도 했다.

아동극,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 연극, 청소년, 노인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담은 세대 공감 공연들을 꾸준히 해온 <창작그룹 가족>에게 <교실 밖, 하나 되는 우리들>은 기존의 창작 작업들과 모두 연결선상 위에 있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시니어 분들이나 참 다양한 문화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볼만한 공연이 없어요. [...] 누가 보느냐, 참여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지만 기본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 작품을 보든 행하든 연극예술이 그 안에서는 중심이 되는 매개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자신들이 볼 수 있는, 볼 만한, 더 공감할 수 있는 연극이 많아지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그게 문화다양성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한참 허공을 떠돌던 그 말이 예술가의 입에서 나오자 다 같이 웃음을 터트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이야기는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숙성되어온 고민인지 느끼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너무 기존의 재미있음, 그런 것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 자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극이 없다는 것은 청소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른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겠다는 거잖아요.”

- 창작그룹 가족, 윤돈선

갈등이 아닌 창조적 변화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기성문화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방식을 시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마치 사회적 갈등에 불을 지피는 것처럼 여기는 시선들이 우리 사회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 새로운 취향과 다양한 하위문화(subculture)들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변화하는 흐름을 최대한 감추는 것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한 사회 안에 불쑥 등장하는 이질성을 위협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 질서나 문화를 하나의 고정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해 안에서 문화의 변화는 문화 자체의 위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서로 다른 문화 간 경계를 견고히 하여 자기 문화, 자기 방식을 사수하고자 하는 태도를 넘어서기 어렵게 한다.

과거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진 초기 다문화주의 정책이 사실은 이와 유사한 태도로 전개되었다. 서로 다른 문화집단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간섭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소수집단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에 유리하였지만, 동시에 주류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약점은 극복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딜레마는 문화다양성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에서도 큰 숙제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탈 식민지화가 본격화되면서 문화의 개념은 한 사회의 창작물이나 행위를 넘어서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새로운 독립 국가들이 출현하는 가운데 고유한 문화정체성은 각 국가의 독립과 국제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개념으로서 정

치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시기 문화 개념은 인간의 보편적인 ‘역량’으로서 역동적인 특질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한다.

그런데 각자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모든 개인 혹은 집단이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게 되면 정말 공존을 향할 수 있을까? 오히려 사람들 간의 분리와 충돌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문화의 개념과 맥락이 다각화되면서 자칫 모순되어 보이는 문화의 역할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유네스코 네트워크 안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대화 끝에 희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⁸⁾ 문화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삶의 본질을 이루는 역량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은 모두에게 자신의 운명에 대한 ‘권한 부여(empowerment)’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성은 각자가 더욱 자신감을 갖고 나와 다른 사람, 다른 문화와 소통하고 공존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근간이 된다는 것이다. 내가 나의 운명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때 다른 문화와의 교류가 위협이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못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유네스코가 정치적 힘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의 역할을 긍정하면서도 서로 다른 다양성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과제를 균형 있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를 더 이상 고정된 양태가 아니라 변화에 열려있는 유기체로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 간의 만남과 영향을 피해야 할 혼란이나 충돌이 아니라 문화적 확장의 통로가 되었고, 이러한 관점 안에서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 문화의 붕괴가 아니라 창조적 변화라는 발전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8) UNESCO, 197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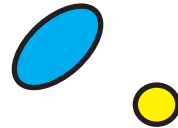
나가는 글 문화다양성을 아는 ‘마음’

연극하는 여자, 애 엄마, 한국 여자, 필리핀 여자, 남아공 여자, 지루해 하던 여자, 배우려고 온 여자, 자기 이야기 하는 여자, 그걸 듣는 여자. 그림 그리길 좋아하는 여자, 아저씨와 함께 온 아줌마, 재미없으면 안 올 거라던 할아버지, 수줍음이 많은 할아버지, 웃음소리가 커진 할아버지, 질문을 던지던 아저씨, 바느질은 힘들다 불평하던 할아버지, 누구를 못 마땅해 하던 아이, 자기 이야기를 말하기 싫어하는 아이, 맹장 수술했는데 한 주 만에 다시 나타난 아이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를 만들어 갔다. 예술가들의 마음에 남은 이 만남들은 설렘이기도, 감동과 배움의 시간이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갈등과 긴장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이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각자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생각하면,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한데 모여 무언가 같이 하려고 할 때 갈등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테다.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참여자들의 불평이나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에 난감할 수 있을 법한 시간들을 곳곳하게 지켜낸 방식은 물론 저마다 조금씩 달랐다. 어떤 예술가는 정적인 프로그램이 지루하다는 반응에 처음의 기획을 고집하는 대신 참여자에게 그만둘 자유를 설명해주었고, 또 다른 예술가는 자기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분위기에 활동의 순서를 바꾸어 보기도 했다. 숙제를 해치우듯 활동에 임하는 사람들이 다른 시각을 찾아볼 수 있도록 더 낯선 탐색활동으로 바꾸어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프로그램의 흐름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컨설턴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예술가도 있었고, 알쏭달쏭한 조언을 계속 성찰하면서 새롭게 자기 질문을 찾아간

예술가도 있었다. 예술가 자기 자신의 기획, 준비된 내용, 기질, 경험 그리고 함께 한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고려사항과 판단들은 조금씩 달라졌다.

애초에 문화다양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솔직한 말들이 사실은 무척 중요한 태도였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명징한 언어로 쉽게 정리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누구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그들과 무엇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소박한 목표가 그들이 만난 ‘누구들’을 보게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묻고 또 듣게 했으며,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만나고 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발견되고 경험되었다. 말끔하게 정의된 말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기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에 자리해 있었고, 앞으로의 시간 안에 더 발견해 나갈 몫의 자리를 마음 한 편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있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쩌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식보다도, 그 경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예술가의 그런 마음, 우리 모두 조금씩은 갖고 있는 ‘타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참고 문헌 및 자료

UNESCO, "Oreint Occident", Courier, 1958. vol 12.

UNESCO, Medium-Term Plan for 1977-82, Document 19 C/14, 1977

UNESCO, UNESCO and The Issue of Cultural Diversity: Review and strategy, 1946-2004 (revised version), September 2004

경기문화재단, 『2017년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결과자료집』, 20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201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세계보고서 :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2010

박영택, "[문화와 삶] 예술, 빛나는 타자를 발견하는 일", 경향신문 (2015.3.4. 일자)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3042044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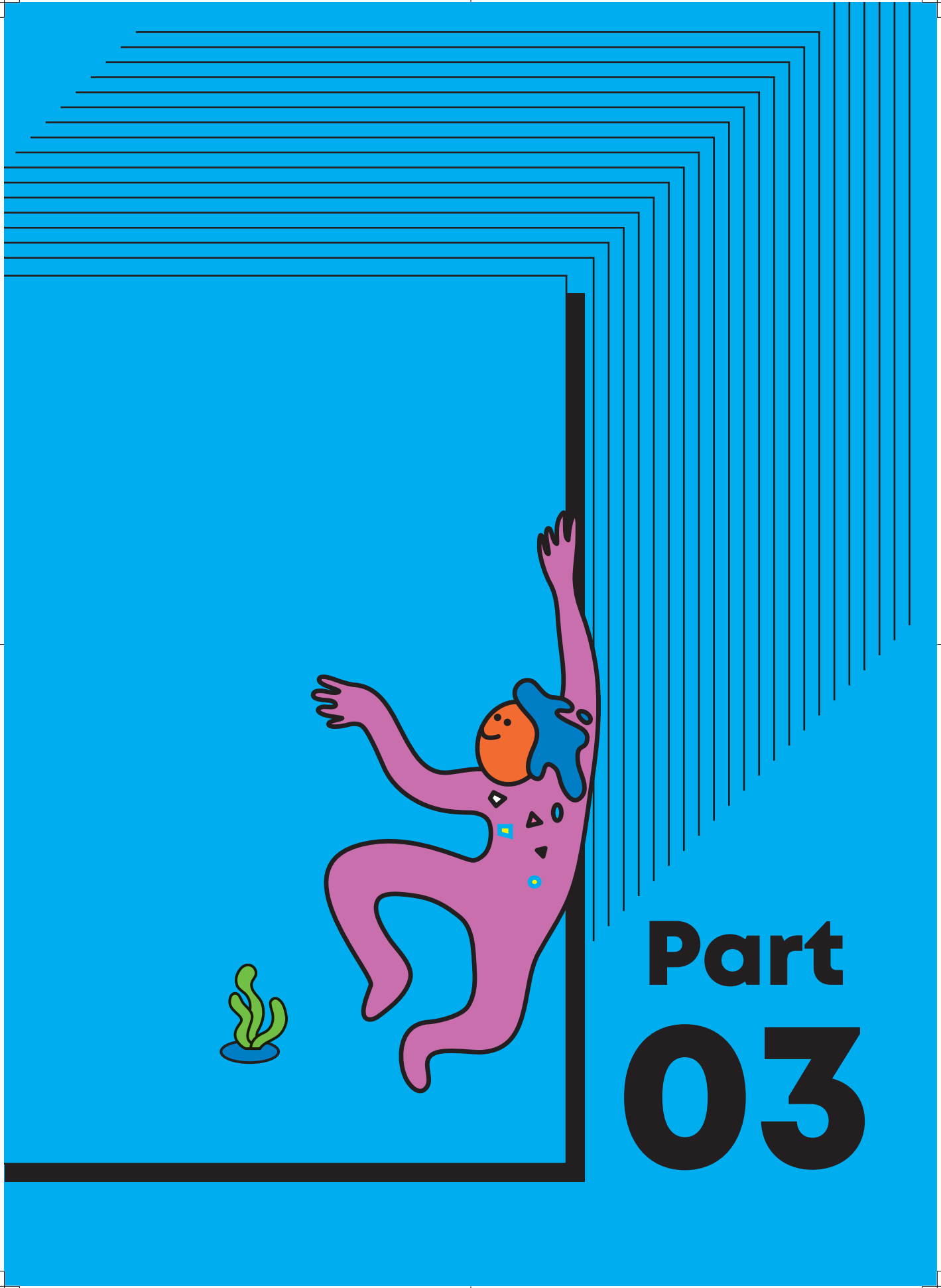
빌렘 플루서, 『몸짓들』, 안규철 역, 위크롬 프레스, 2018.

장동선, 줄리아 F. 크리스텐슨, 『뇌는 춤추고 싶다: 좋은 리듬을 만드는 춤의 과학』, 염정용 역. 아르테, 2018. 북 트레일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11qGYITr4Y>

2018년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사업이 지나온 길

- 사업 기본 개요
- 사업 추진 과정
- 2018년 사업 참여 단체



Part
03

사업 기본 개요

사업명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사업목표

지역, 세대, 문화 등의 다름으로 인해 만들어진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문화다양성이 공존하는 공동체 활동 발굴 및 지원

사업기간

2018년 6월 ~ 12월

사업대상

사회적 약자가 포함된 경기도민(사회적 약자와 다수자 통합 구성)

사회적 약자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각종 자원 및 기회의 배분으로부터 제외되어 네트워크 단절, 공동체 의식의 부재, 고립 등 사회관계의 결핍과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자/집단

※ 사회적 약자 예시 :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지원분야

‘몸의 움직임(movement)’을 매개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

지원대상

서울·경기도 내 문화다양성 가치 발굴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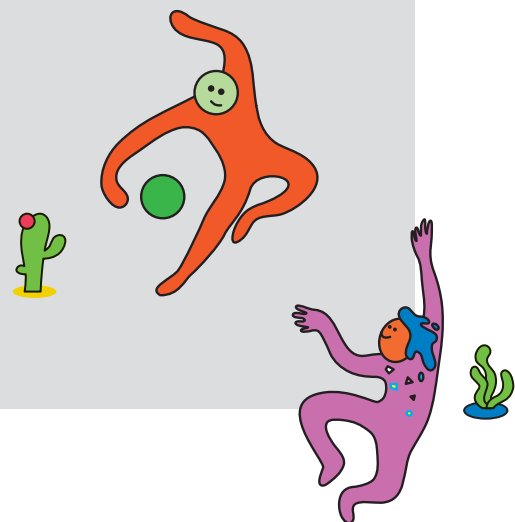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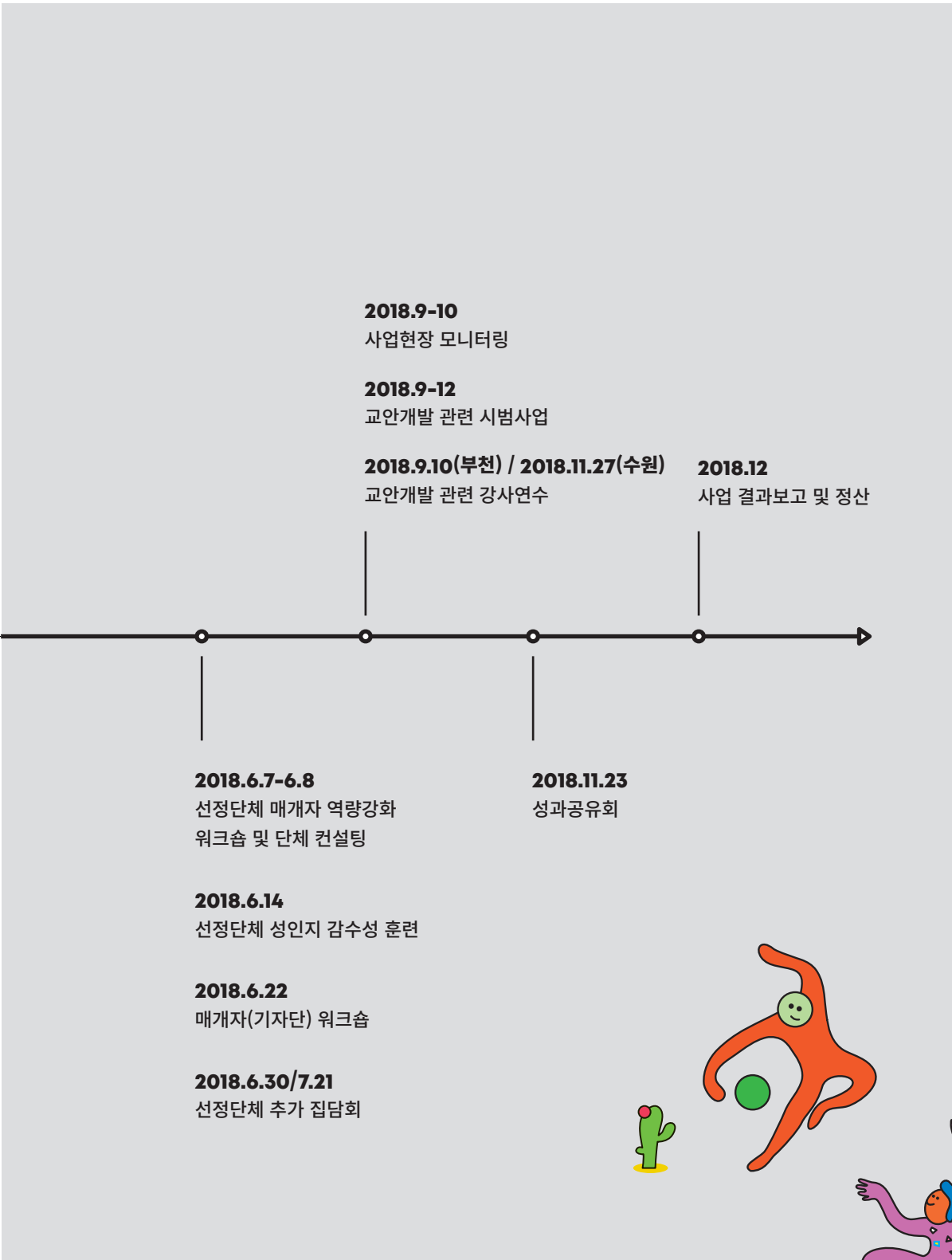
운영내용

대상	프로그램 내용
사회적 약자와 다수자 통합구성	‘몸의 움직임’을 매개로 그들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움직임’을 매개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발견하고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만드는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
자유제안	사회적약자, 새로운 문화다양성 대상 발굴 및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운영형태

프로젝트형/교육형 자율선택

- 참여자들이 기획 과정부터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거나, 참여자들에 의해 문화다양성의 가치 발굴 과정과 결과가 변화되는 활동
- 일회성/단기 행사가 아닌 3개월 이상의 참여자들과의 과정이 포함되는 활동
- 다문화 참여자의 단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통합적 관점의 프로그램 지양



2018년 사업 참여 단체

구분	단체명	프로그램명	운영지역
1	달그락아트컴퍼니	도전! 무(無)한 셀럽	남양주
2	(사)연극놀이터 해마루	천사를 지키는 사람들	과천
3	마네트, 상사화	우리는 오감 트랜스포머	양평
4	아트컴퍼니 예기	기억소환	수원
5	아트코레(ARTCORE)	<열매맺기> 열린 어린이, 열린세상, 관계맺기	포천
6	에코다움컴퍼니	움직임 조각이 만든 춤추는 모자이크	구리
7	영상예술포럼	춤추는 나:댄스필름 만들기	고양
8	예술문화연구소	청춘고백	용인
9	창작그룹 가족	교실 밖, 하나되는 우리들	양주
10	찾아가는 연희극단 너영나영	움직임 참여연극 “같은 몸, 다른시선”	양평
11	춤추는 헬렌켈러	헬렌켈러와 춤을	안양
12	프로젝트 제로	F등급: 여성적 몸쓰기	파주
13	행복한 상상	공연으로 보는 세계의 공주 이야기 - 공주들의 파자마파티	동두천

참여대상	프로그램 내용
초등학교 3~6학년 (다문화가정 아동 포함)	감성 중심의 '셀럽 아리랑 춤' 만들기, 공감과 소통을 위한 공동체로 '셀럽댄스'로 하나되기 등 활동 과정을 통해 편견을 깨고 수평적 사고하기, 창의적 아이디어 표출하기 등
장애아동을 둔 엄마와 장애아동, 비장애 아동	장애아동 엄마의 힐링 프로그램,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만들어 가는 움직임 연극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 마을주민	오감과 관련한 놀이활동
60세 이상 남녀	참여자의 과거 경험을 일곱 빛깔에 비추어 몸의 움직임으로 소환, 개인의 내적갈등 해소, 위로의 시간 갖으며, 구성원 간의 공감과 소통 유도
초등학교 저학년	무용을 중심으로 감각열기, 세계 탐험, 놀면서 친구되기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움직임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 형성하고 자신의 정체성 회복하는 프로그램
장애 아동, 청소년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 과정을 댄스필름으로 만들어 서울무용영화제에서 상영
지역 내 거주 어르신	어르신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만들어 노인세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공연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와 가치 소통
시설보호관찰 청소년	범위 청소년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공연을 만들고 사람들 초청하여 공연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30~40대 여성	청소년 및 성인여성이 성을 주제로 움직임 퍼포먼스를 제작하고 참여연극 형태의 공연을 통해 서로 다름과 차이 발견
장애인(시각), 비장애인 청소년	호흡명상무와 참여자들의 추제적인 공연활동을 통해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의 공연제작
다문화이주민을 포함한 여성	움직임을 통한 보편 언어를 발굴하고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의 공감대를 만들고 다양성의 즐거움을 나누는 장 만들
동두천 보산초등학교 및 관내 유치원	세계의 공주 동화를 활용하여 에듀테인먼트 공연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 POP-UP 형태로 초등학교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고 결과물은 동두천 지역 내 유치원 대상으로 공연

단체별 사진



사업추진과정



선정단체 매개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단체 컨설팅



매개자(기자단) 워크숍



성과공유회



2018년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사업 결과자료집

주최: 경기도

주관: 경기문화재단

기획총괄: 문예진흥팀 문성진 팀장, 권신 팀장

기획운영: 문예진흥팀 문형순 차장

운영지원: 문예진흥팀 한명희, 윤동현

결과자료집 기획: 미들클래스소사이어티 사회적협동조합

결과자료집 원고

· Part 1/2 권민영(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통합과정)

· Part 3 미들클래스소사이어티 사회적협동조합

결과자료집 디자인: 래빗은

발행일: 2018.12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전화 031-231-7237 / 팩스 031-236-0283 / 홈페이지 www.ggcf.kr